

나 다 단 身部에 斷線이 있고 尾部에 이르러 가늘게  
 또 頸下에서 長短二條가 身部를 따라 屈曲하였는데 長條의 先端은 分  
 岐되어 雙鉤形을 이루고 있다. 다시 此品의 特異點으로서는 上身後部에  
 小圓一孔이 貫通되고 있는 것인데 用途와 더불어 注目되었다. 以上 兩  
 品은 百濟代의 造形으로 推定되는 바 稱拙한 樣式과 彫法에서 龍形紋의  
 高古한 遺例이다.

계 半肉彫하였고 身  
 部中央에는 中心線  
 을 따라 一莖上下兩  
 枝形과 頭上에 圓珠  
 一個만을 새겼다. 兩  
 頭에는 雙角이 길게  
 平行하였고 開口하  
 였으며 눈은 圓形으  
 로 點睛되었다.

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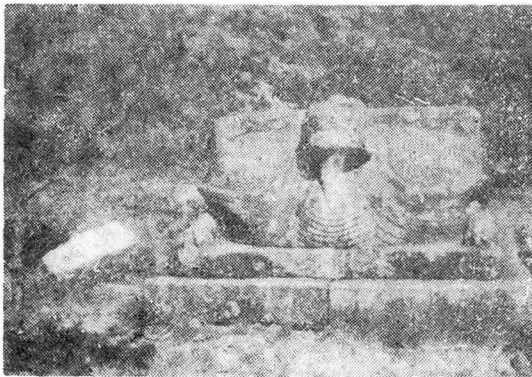
前例보다 小形으  
 로 厚三、五cm、徑  
 一五、五cm의 花崗  
 石圓盤으로서 今年  
 十月中旬頃 扶餘邑  
 東南里(鄭材木商家  
 屋內에서 우물 工事  
 時 地下 十尺에서  
 出土되었다. 單龍形  
 으로 前例와 類似하

安養의 磨崖鐘과 逸名塔碑

鄭 明 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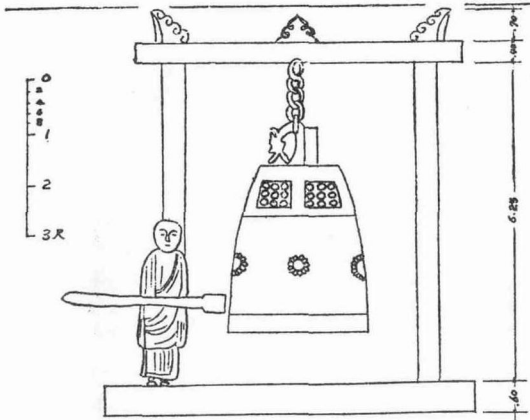
京畿道 始興郡 東部面 安養里 石水洞에 所在하는 이 遺蹟地는 安養驛  
 에서 東北方 約二km 되는 遊園地에서 溪川越便의 一帶이다. 이 窟入口  
 에는 新羅의 中初寺址가 있는데 現在址에는 柳柳産業이 建設되었지만 鐘  
 竿支柱와 三層石塔  
 (國寶第六、七號)

은 남아있으며 그庭  
 園에는 古瓦가 散在  
 하여 注目되는 바이  
 다. 이 窟에서 東으  
 로 約 五百m 되는  
 穴에 南南東을 向한  
 巖面에 磨崖鐘이 있  
 는데 「朝鮮寶物調査  
 資料」始興郡 二八  
 番 崖鐘條에 「屹立  
 셀岩ノ斷面ニ鐘ノ  
 圖ヲ刻ス高サ八尺幅  
 六尺位」라고 記錄되  
 어 있을뿐이다. 이  
 鐘은 木架에 鐵索으  
 로 달아놓은 形式인  
 데 그 右便에는 僧  
 形人物이 袈裟를 입



고撞木을 잡고 있으며 木架兩柱上에 걸친「보(樑)」의 中央에는 鐘의 特徵을 보여주고 있으니 卽頂上으로부터 甬筒이 있고 龍鈕에는 鐵索을 끼였으며 上帶와 下帶가 있고 乳廓內에는 九乳가 乳廓間의 鐘腹에는 複瓣蓮花의 圓形撞座가 彫刻되었다. 이 鐘의 總高는 四尺五分, 身高三尺三寸, 上徑一尺六寸, 下徑二尺七寸七分이며 僧形人物의 高는 三尺三寸五分, 木架의 高는 六尺二寸五分이다.

다음에 逸名塔碑는 磨崖鐘에서 東東北方 約八百米되는 곳에 新築된 安養寺에서 다시 後山을 조금 올라가면 「거북골」이라는 곳이 있으니 이곳에 龜趺와 浮屠(地台石, 中台石, 屋蓋石)만이 現存가 있다. 이에 대하여서도 上揭한 資料 二四番에 「石碑龜趺ハ長サ十尺幅七尺高サ三尺五寸石碑ハ粉碎セラレテ破片ノ一部ヲ存ス傍ニ倒レタル石燈一及廢井一アリ里人ハ佛谷ト稱シ寺利アリシト傳フレトモ寺名等不詳」이라고 記錄되어 있는 石燈이라고 한것은 浮屠를 誤認한듯 하다. 石碑는 現在 碑身과 螭首가 없고 龜趺만이 남아 있고 그 周邊에 碑身細片이 散在하고 있는 데 住



民에 依하면 韓日合邦初에 碑身을 破壞하였다고 한다. 이 碑에 대하여 「大東金石書」에는 安養寺 七層塔銘이라하여 一枚의 拓本만을 실리고 있다. 다시 「大東金石目」에는 「安養碑 在 衿川三聖山 安養寺七層塔銘 尙書金富徹 文李元符書 南宋高宗紹興元年 辛亥立麗仁宗九年也」라고 있으며 「東國輿地勝覽」衿川縣佛宇 安養寺條에 「在三聖山 寺之南 有高麗太祖所建七層觀塔 金富 賦撰碑 字鐵……」라 하여 史

上에 有名한 安養寺七層觀塔과 이 碑銘을 關聯시키고 있다. 그러나 果然이 龜趺가 그에 該當되는 것인지 疑問되는 바이다. 그런데 이 龜趺에서 碑片「皆」一字와 「則」二字를 發見하였는데 中「則」是 「師」가 아닌가 하여 처음보는 碑陰記片으로 推定되며 「皆」는 文體와 크기가 「大東金石書」의 그것과 同一한데서도 이 龜趺가 安養碑의 것임이 를 疑없을 것이다. 다만 그 앞에 浮屠가 建立되고 있는 點과 「大東金石書」에 보이는 碑文中에 「姓高氏東州伊川人也父……」으로 보아 高麗太祖의 七層觀塔을 위한 塔碑가 아니요. 그 當時 此寺의 高僧인 「俗姓高氏」를 위한 塔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보고자 하는 바이다. 이곳 七層觀塔은 李朝初期까지 남아있었을 것인데 朗善君時代에 이르러 上記한 바와 같이 「字缺」이라고 한 이 碑가 有名한 觀塔과 잘못 關聯을 맺은듯 하다. 이 浮屠와 龜趺의 彫刻手法 또한 이 碑의 建立年代인 高麗中期에 推定되는 作品으로 보인다. 龜趺地台石의 橫七尺二寸, 縱九尺四寸五分, 高五尺七寸三分, 長八尺二寸이며 碑座外廓의 幅一尺八寸四分, 橫幅五尺七寸五分, 深一尺二寸八分이다. 浮屠의 地台石幅四尺三寸五分, 高五寸六分, 複蓮座台幅三尺二寸, 擘石面接部幅一尺九寸五分, 全體高一尺四寸二分. 中台石幅三尺三寸五分, 高一尺, 屋蓋石直徑四尺, 高一尺二寸七分이다. 龜趺의 方向은 西向인데 그 周圍에서도 高麗時代의 瓦磚片이 散在하고 있다. 上記한 磨崖鐘의 年代는 高麗初期로 推定되는 바 今後이 遺址一帶는 觀塔址와 더불어 調査對象이 될만 하다.

第一卷 第五號 通卷 五號

庚子本 莊子虞齊口義

李 謙 魯

지난 九月 下旬頃에 庚子字本 莊子虞齊口義 零本一冊을 入手秘藏하였다. 이 庚子字는 李朝歷代帝王中에서 가장 賢明하신 世宗大王二年庚子—— 同三年辛丑에 第二回로 鑄造한 銅活字인데 世宗十六年 甲寅에 第三回로 甲寅字入銅V를 鑄造할때까지 約十二年間 使用한 活字이다. 따라서 五